

##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의 비중 추이

-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를 시간당 임금 중위수준의 2/3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정의할 경우, 임금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는 2010년 1~3월 평균 시간당 약 5,523원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, 2010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26.5%를 차지하고 있음.
-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.4%로 비정규직의 절반에 가까운 근로자가 근로빈곤 상태에 있음.
- 비정규직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7년 3월 33.9%까지 감소했지만,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-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는 한시근로자 중 계속근무 기대 불가와 시간제, 용역, 일일, 가정 내의 근로형태에서 50%가 넘으며, 가정 내 근로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가 저임금근로자임.

<표 1> 근로형태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

(단위: %)

|          | 2003.8 | 2004.8 | 2005.8 | 2006.8 | 2007.8 | 2008.8 | 2009.8 | 2007.3 | 2008.3 | 2009.3 | 2010.3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임금근로자    | 24.1   | 26.3   | 26.6   | 25.8   | 27.4   | 26.0   | 26.2   | 23.3   | 26.7   | 25.6   | 26.5   |
| 정규직      | 17.6   | 19.7   | 19.4   | 19.0   | 20.2   | 19.0   | 17.3   | 17.1   | 18.7   | 17.8   | 18.7   |
| 비정규직     | 37.7   | 37.5   | 39.1   | 38.3   | 40.2   | 39.7   | 42.7   | 33.9   | 41.5   | 41.1   | 42.4   |
| 한시직      | 36.8   | 35.8   | 37.7   | 36.0   | 36.8   | 36.4   | 40.9   | 30.7   | 37.9   | 36.7   | 38.1   |
| 기간제      | 37.1   | 36.2   | 35.5   | 36.0   | 36.3   | 33.8   | 38.8   | 30.5   | 32.8   | 31.9   | 37.3   |
| 계약반복갱신   | 22.3   | 17.9   | 27.3   | 19.5   | 19.2   | 20.9   | 17.7   | 14.4   | 18.8   | 33.6   | 14.2   |
| 계속근무기대불가 | 44.9   | 53.5   | 53.6   | 53.7   | 60.6   | 58.5   | 59.7   | 50.3   | 59.9   | 57.7   | 58.0   |
| 시간제      | 41.4   | 44.0   | 46.6   | 43.4   | 49.6   | 52.7   | 55.3   | 42.1   | 52.9   | 53.2   | 57.2   |
| 파견       | 27.3   | 34.9   | 31.5   | 34.2   | 32.8   | 23.9   | 24.7   | 28.8   | 29.8   | 26.0   | 33.7   |
| 용역       | 58.3   | 58.3   | 56.0   | 63.3   | 59.5   | 56.3   | 56.3   | 55.5   | 53.7   | 54.9   | 57.0   |
| 특수고용     | 23.3   | 22.1   | 25.5   | 27.4   | 30.8   | 23.8   | 26.2   | 24.6   | 25.7   | 27.8   | 24.7   |
| 가정 내     | 80.3   | 67.2   | 65.7   | 71.6   | 80.4   | 79.6   | 77.2   | 62.8   | 63.3   | 80.8   | 88.4   |
| 일일       | 47.4   | 50.0   | 50.9   | 48.1   | 52.0   | 51.0   | 52.7   | 43.9   | 54.3   | 56.7   | 54.2   |

주: 저임금근로자=중위임금(시간당 임금)의 2/3 이하 근로자.  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-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고, 20~30대보다는 중장년층에서 높게 나타남.
  - 2010년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남성은 16.4%, 여성은 40.2%이며, 남성에 비해 여성 저임금근로자가 약 2.5배 가량 높은 수준임.
  - 특히 남성은 정규직에서 10% 미만, 비정규직에서 34.4%가 저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반면, 여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며, 고용형태를 나누어 보더라도 여성에 저임금근로 비중이 더 높은 편임.
  - 한편, 남성 시간제와 파견근로의 저임금근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.
  - 연령별로 살펴보면, 30대에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 2010년 3월 기준으로 14.1%인 반면, 10대는 83.7%임.
  -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40대에서 23.9%, 50대에서 33.5%, 60세 이상에서 69.0%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장년층과 고령자에 더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.
  - 2000년 이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, 임금근로자에서 저임

〈표 2〉 근로형태별·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

(단위: %)

|          | 남 성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여 성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2007. 3 | 2008. 3 | 2009. 3 | 2010. 3 | 2007. 3 | 2008. 3 | 2009. 3 | 2010. 3 |
| 임금근로자    | 14.0    | 16.6    | 15.7    | 16.4    | 36.0    | 40.5    | 39.2    | 40.2    |
| 정규직      | 8.6     | 9.2     | 8.7     | 9.9     | 30.9    | 34.0    | 32.8    | 33.7    |
| 비정규직     | 25.4    | 33.4    | 33.4    | 34.4    | 42.8    | 49.7    | 48.5    | 49.3    |
| 한시직      | 21.2    | 28.5    | 28.5    | 29.1    | 41.8    | 48.2    | 45.5    | 46.5    |
| 기간제      | 23.1    | 27.5    | 25.8    | 30.7    | 39.9    | 39.4    | 38.9    | 43.5    |
| 계약반복갱신   | 6.5     | 6.0     | 20.5    | 8.2     | 26.4    | 38.3    | 37.5    | 22.5    |
| 계속근무기대불가 | 33.4    | 43.7    | 43.0    | 40.1    | 59.7    | 70.7    | 68.7    | 69.8    |
| 시간제      | 36.4    | 49.9    | 48.4    | 56.6    | 44.8    | 54.2    | 55.1    | 57.4    |
| 파견       | 13.0    | 12.5    | 18.2    | 33.9    | 42.4    | 49.1    | 32.5    | 33.6    |
| 용역       | 49.7    | 48.7    | 51.1    | 52.9    | 64.4    | 61.3    | 59.6    | 62.5    |
| 특수고용     | 25.4    | 23.6    | 27.7    | 22.5    | 24.2    | 26.9    | 27.8    | 25.6    |
| 가정 내     | 43.4    | 27.9    | 57.0    | 71.9    | 65.0    | 76.8    | 84.0    | 90.3    |
| 일일       | 33.3    | 43.9    | 43.8    | 43.2    | 63.4    | 74.3    | 80.8    | 76.8    |

주 : 저임금근로자=중위임금(시간당 임금)의 2/3 이하 근로자.  
 자료 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-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여성과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 높은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취약계층의 구직자가 근로빈곤층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함. **KLI**

<표 3> 2010년 3월 근로형태별·연령별 저임금근로자 비중

(단위: %)

|          | 전 체  | 15~19세 | 20~29세 | 30~39세 | 40~49세 | 50~59세 | 60세 이상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임금근로자    | 26.5 | 83.7   | 24.7   | 14.1   | 23.9   | 33.5   | 69.0   |
| 정규직      | 18.7 | 81.4   | 21.5   | 10.6   | 18.2   | 24.1   | 53.9   |
| 비정규직     | 42.4 | 84.5   | 32.4   | 24.9   | 37.1   | 48.1   | 75.7   |
| 한시직      | 38.1 | 75.0   | 23.8   | 19.4   | 34.5   | 47.8   | 76.9   |
| 기간제      | 37.3 | 66.9   | 21.8   | 17.0   | 30.8   | 48.0   | 77.5   |
| 계약반복갱신   | 14.2 | -      | 12.3   | 7.4    | 16.3   | 22.3   | 51.1   |
| 계속근무기대불가 | 58.0 | 95.6   | 47.3   | 48.0   | 59.5   | 56.1   | 78.2   |
| 시간제      | 57.2 | 87.3   | 54.0   | 41.4   | 47.1   | 55.5   | 75.9   |
| 파견       | 33.7 | 78.4   | 22.2   | 9.5    | 37.3   | 36.1   | 76.5   |
| 용역       | 57.0 | 74.9   | 35.5   | 20.5   | 38.8   | 61.2   | 83.3   |
| 특수고용     | 24.7 | -      | 13.7   | 17.2   | 23.3   | 26.8   | 76.0   |
| 가정 내     | 88.4 | -      | 83.6   | 86.3   | 82.9   | 92.6   | 100.0  |
| 일일       | 54.2 | 100.0  | 61.9   | 50.9   | 43.9   | 51.0   | 74.7   |

주: 저임금근로자=중위임금(시간당 임금)의 2/3 이하 근로자.  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
(정성미,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